

청소년이 지각한 심리적 독립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A Study on the Effects of Psychological Independence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Career Maturity among Adolescents

이재희(Lee, Jae-Hee), 이지민(Lee, Ji-Min)*

Department of Family and Housing Studies, Yeungnam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influences of psychological independence(functional independence and emotional independence)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self-estimation, career goal, occupational-knowledge, and problem solving) on career maturity(preparation, objective, decisiveness, and certainty) among adolescents. The subjects were 447 students in the second grade of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in D. The questionnaire consist of measures of psychological independenc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maturity. The data were analysed with factor analysis, Cronbach's α , t-test, ANOVA,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by using the SPSS(SPSS/WIN 19.0) program.

The major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adolescents' the career maturity was significantly different depending on the socio-demographic variables. Second, it was shown that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have a statically relation, in a relation among psychological independenc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maturity. Third, it was found that psychological independence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gave statistically meaningful influence on the career maturity of adolescent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suggests a plan for improving career maturity, and provides a basic material to improve one's active role in their parents. In addi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a fundamental reference in career development programs and career-counseling centers at schools for enhancing adolescents' career development and success.

▲주제어(Key Words) : 진로성숙도(career maturity), 심리적 독립(psychological independence), 진로결정 자기효능감(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청소년(adolescents)

I. 서론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시기이며, 개인이 정체감과 가치관을 획득하고 정립해야하는 중요한 시기로 자아정체감에 대한 갈등을 겪는다. 즉, 직업, 가치관, 정체

감 등을 확립해 가는 선택과 결정의 시기인 것이다. Erikson (1969)에 따르면, 이 발달시기의 핵심은 개인이 아동기에 이루어 놓은 개인적인 동일시를 넘어서서 더욱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서의 자아를 탐색하고 확립해 가는 것이다. 그는 이 시기가 청소년들이 인생을 위한 중요한 진로선택과 결정의

* 본 논문은 석사학위 논문 중 일부임.

* Corresponding Author : Lee, Ji-Min, Department of Family and Housing Studies, Yeungnam University, Daehak-dong, 280 Daehak-Ro, Gyeongsan, Gyeongbuk 712-749, Korea, tel: +82-53-810-2866, E-mail: ljimin@yu.ac.kr

바탕을 형성하는 시기라고 하였다. 또한 이 시기의 결정은 개인의 정체감을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았다(Kim, Kim, and Jyung, 2006).

이와 같이 청소년기의 진로선택과 결정은 매우 중요하고도 어려운 발달과업이다.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2012)의 '청소년의 생활실태 국제비교연구'에서는 한국 청소년(만 19세 ~ 24세)의 고민거리 1순위가 진로·진학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대상인 만 19세에서 24세의 청소년은 개인이 선택한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과 준비가 중요하며, 이와 같은 발달과업을 적절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앞서 중·고등학교 시기에 개인의 충분한 진로탐색 활동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필요성에 근거하여 국가적인 진로교육도 실시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2013)의 '2013년도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에서도 그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전국 모든 중·고등학교에 진로진학상담교사를 선발하여 배치하고, 모든 중·고등학생에게 연 2회 이상의 진로심리검사와 진로상담을 제공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진로탐색 및 선택에 관한 실질적 지원이 개인뿐 아니라 학교, 지역사회 및 국가적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항임을 알 수 있다.

청소년의 진로교육과 직업지도의 핵심적 개념인 진로성숙을 이해하는 것은 그들의 진로교육과 진로방향 설정에 매우 중요하다. 진로성숙이란 개인이 진로에 대해 정보를 탐색하고 결정하는 모든 연속적인 과정을 의미하며, 자신의 취미와 적성, 흥미 및 능력 등을 정확히 평가하고 현실과 적절히 조합해 나가는 과정이다(Super et al., 1957; Lee, 1997). 또한 이 과정 속에서 개인이 직업에 대한 가치, 헌신을 할 수 있는 가장 알맞은 진로를 선택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준비를 해 나가는 과정이며, 평생 진로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과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진로성숙에 대해 연구하고, 그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및 환경적 변인들을 살펴보는 것은 진로상담과 학교의 진로지도 현장에서 더욱 효과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기에 매우 중요하다.

진로성숙도에 대한 연구는 Ginzberg et al.(1951)의 진로발달이론부터 시작하여 Super et al.(1957), Crites(1961)에 이르기까지 여러 학자들의 개념적 정의가 이어져 왔다. Hoyt(1977)는 진로성숙을 개인이 자신과 직업세계를 탐색하여 이들을 적절히 통합하여 준비해 나가는 정도라고 정의하였고, Fouad(1988)는 개인이 자신의 연령 수준에서 주어지는 진로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진로성숙도와 관련한 국내의 연구의 동향(Yoo, Yun, & Kang, 2006; Au, 2008; Song, 2011)을 살펴보면 진로성숙도의 척도 개발 및 프로그램 개발과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개인적 및 환경적

변인들을 알아보는 연구로 보고된다. 즉, 진로상담 현장 및 진로지도프로그램에서의 적절한 개입과 체계적인 상담을 위해 진로성숙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진로성숙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의 심리적 독립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청소년은 타인의 지지와 어느 정도의 의존이 필요하며, 특히 부모와의 관계가 삶의 선택에서 큰 영향을 미친다. 부모와의 건강한 심리적 독립이 진로탐색 및 선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된 연구들을 통해, 진로성숙을 예언하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Choi, 2006; Park, 2009). 또한, 진로성숙에 관련된 개인내적 요인에 대한 연구들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살펴볼 수 있다. 다양한 선행연구들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성숙도도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Lee, 2001; Lee & Cheon, 2004; Park, 2007). 다시 말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탐색 및 의사결정 등의 진로행동을 수행하는 정도로 개인의 진로선택의 동기유발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이다(Lea, 2000). 즉, 청소년의 진로성숙도를 높이기 위한 상담,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부모와의 심리적 독립과 개인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세부적인 하위요인들을 통해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일괄적인 진로성숙도에 관한 연구보다는 연령별 발달 특성에 따른 체계적인 접근을 위해 발달 시기상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더욱 현실적이고 구체적임을 가정할 수 있다.

심리적 독립은 개인이 부모와 의존적인 관계에서 벗어난 자율적인 관계 속에서 사고와 행동의 개별적인 자유로움을 얻는 것으로, 자신을 부모와 분화시켜 자아정체감을 획득하는 과정 전체를 말한다(Josselson, 1988; Rice, 1992). Havinghurst(1952)는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과 개인의 자아정체감 확립, 진로결정 및 직업선택은 청소년 시기에 중요한 발달과업이라고 하였다. 특히,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은 더 심층적인 사회 심리적인 적응을 위해 필요하며, 건강하게 이루어야 하는 욕구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하여 Rhee(2003)는 청소년의 심리적 독립을 위해 가족구성원들이 청소년기 자녀의 개인 존재에 대한 지지를 제공해야 하며, 특히 부모와 자녀 간의 밀착된 상호작용을 줄여 진로준비성의 발달을 격려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심리적 독립의 4가지 하위요인(기능적 독립, 정서적 독립, 태도적 독립, 갈등적 독립)과 진로성숙도에 대한 다양한 연구에서 일관적인 결과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Tang, Fouad, and Smith(1999)가 연구한 가족의 관여가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진로선택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가족의 관여가 진로선택에 중요한 예언변인으로 나타났다(Kim & Rhyu, 2009, 재인용). 심리적 독립과 진로성숙도에 관련한 다양한 연구들은

(Yoo & Lee, 2005; Park & Kim, 2006) 한국 문화에서 부모가 자녀의 진로성숙과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Seo(1994)도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과 같은 사회·심리적 변인이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심리적 독립이 진로성숙에 대해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음을 보고한 Lee(2002)와 Choi(2006)의 연구도 살펴볼 수 있다. Park(2009)의 연구에서도 심리적 독립이 진로성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나타냈다.

한편, Hackett and Betz(1981)는 자기효능감을 바탕으로 전반적인 진로상황과 관련된 개인적 효능감을 측정하는 것을 '진로자기효능감(Career Self-Efficacy)'이라고 하였다. 이는 자기효능감을 진로발달모델에 포함시킴으로써 개인의 성취행동, 진로결정 및 선택을 성공적으로 예측할 것으로 여기고 적용한 개념이다.

여러 연구들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인임을 밝히고 있다. Kim(2001)과 Yang(2004)의 연구에서도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들이 진로선택과정의 관여성, 진로선택에 대한 저항, 진로결정에 관한 결정 정도, 진로문제에 대한 타협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Lea(2000)는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의 진로성숙도를 예측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임을 밝혔으며, 특히 목표선택이 가장 강력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장기적인 미래를 예측하고 희망이나 비전을 제시하는 것과 관련된 목표선택의 영역과 정확한 자기에 대한 인식, 긍정적인 미래관 등이 자기효능감과 관련되어 있으며, 이 전체가 진로발달에 대해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또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Kim, 2005)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에 대해 유의미한 직·간접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지지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통해 진로성숙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고, 역기능적 진로사고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주어 진로성숙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처럼 진로성숙도와 관련된 연구들은 다양한 변인(개인 심리적, 가족관련변인, 개인외적변인)과 함께 고려되어 연구되어지고 있으며, 진로성숙은 발달적 이론의 측면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연령과 성별에 따른 변화 연구를 살펴보는 연구들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Lee et al., 2004; Shin & Lee, 2011; Song, 2011). Song(2011)의 연구에서 한국교육고용패널(KEEP)데이터를 이용하여 중단연구를 통해 진로성숙도를 측정된 결과, 선형모형이나 잠재성장모형에서 모두 중·고등학교 시기에 진로성숙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진로성숙도가 연령과 정적관계가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Kim, Lee, and Choi(2010)

는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5년 동안의 중단연구를 통해 연령에 따라 진로성숙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함을 보고했으며, Shin and Lee(2011)의 진로성숙 발달에 관한 4년 중단 연구에서도 진로성숙이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의 진로발달에 관한 연구들에서 진로성숙도가 연령과 학년이 높아질수록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 이전의 연구들과도 일치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Yoo, Yun, & Kang, 2006; Au, 2008).

한편, 학년 및 성별에 따른 진로성숙의 차이를 검증한 연구(Cha et al., 2007)에서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진로성숙도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이 남학생과 비교하면 자신의 진로선택에 대한 계획, 자신에 대한 객관적 이해와 수용, 그리고 진로와 관련된 정보를 탐색하고 준비하는 행동이 더욱 빈번함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Yoo, Yun, and Kang(2006)의 연구에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진로성숙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는 개인의 진로성숙은 지속적으로 발달되어 간다는 '발달'의 속성을 고려하여 청소년이 지각한 심리적 독립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즉,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와 달리, 청소년들의 진로성숙도를 발달의 속성을 기초하여 외적, 내적인 요소를 동시에 살펴보는 데 의의가 있다. 즉, 우리나라의 고유한 교육 환경과 문화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는 부모와의 심리적 관계와 자신에 대한 이해정도를 주요 변인으로 하는 점에서 차별화된다고 할 수 있다. 부모와의 관계는 청소년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그들은 청소년들의 전반적인 진로선택과 장기적인 계획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타인이므로 영향력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자신의 진로에 대한 믿음과 확신정도가 진로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진로상담현장과 진로지도 프로그램 구성 시에 연령을 고려한 개입과 내실 있는 진로교육·상담의 정책적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부모와의 건강한 심리적 독립과 개인 내적으로 자신을 믿고 신뢰하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상담, 프로그램, 정책의 개발이 이루어 질 것이다. 이러한 개발을 통해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각자의 진로를 개인의 충분한 이해를 통해 이루어 나간다면, 개인의 성향, 욕구를 고려하지 않고 수입만을 우선시 하는 진로결정의 사례가 줄어들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발달적 접근으로서의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진로상담 현장에서는 연령에 따른 적절한 개입과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진로교육 방법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연구문제 1> 사회인구학적 변인(성별, 학년, 가족형태, 출생순위, 부모연령, 부모학력, 부모직업, 경제수준, 평균성적)에 따라 청소년이 지각한 진로성숙도는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청소년(중학생, 고등학생)이 지각한 심리적 독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청소년(중학생, 고등학생)이 지각한 심리적 독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D 지역 중학교 2학년과 인문계 고등학교 2학년 4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2

개교로 총 4개교로 선정하였다. 연구 대상은 발달 시기상의 차이를 가진 중학생과 고등학생으로, 고등학교 계열선택 및 자신의 진로를 탐색해가는 중학교 2학년과 문·이과의 계열을 선택하고 자신의 진로 및 적성을 토대로 대학 전공 결정을 앞둔 고등학교 2학년이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중학교 2학년과 3학년 시기에는 진로성숙 정도가 낮았으나, 고교 진학 이후에는 더욱 급격하게 향상되었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하였다(Au, 2008). 중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각각 5명씩 총 1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본 조사는 2011년 7월 5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각 학교(4개교) 측의 동의를 얻어 연구목적 및 유의점에 대한 안내 후 진행되었으며, 중학생 240명과 고등학생 230명으로 총 470부를 실시하였다.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답변이 누락된 설문지 15부를 제외한 총 447부(중학생 232부, 고등학생 215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Sample

(N = 447)

variable	category	n	%	variable	category	n	%
Gender	Male	239	53.5	Father Education	Less than high school	195	43.6
	Female	208	46.5		Graduate from the university	237	53.0
	Total	447	100		Total	432	100
Grade	Middle school student	232	51.9	Mother Education	Less than high school	226	50.6
	High school student	215	48.1		Graduate from the university	204	45.6
	Total	447	100		Total	430	100
Family	Nuclear-family	383	85.9	Father Career	Specialized technical and directorate office	208	50.0
	Extended family and others	63	14.1		Sales service and production labor	99	23.8
	Total	446	100		Career-less and others	109	26.2
Birth Order	First	195	43.7	Mother Career	Career	217	48.5
	Second	62	13.9		Career-less	199	44.5
	Third	153	34.3		Total	416	100
	Only Child	36	8.1	Income Level	Middle-high level	217	51.1
	Total	446	100		Middle-low level	208	48.9
Total	446	100	Total		425	100	
Father Age	Under the age of 49	309	70.7	Average Score	High-level	207	47.0
	Over the age of 50	128	29.3		Mid-level	170	38.6
	Total	437	100		Low-level	63	14.3
Mother Age	Under the age of 49	401	91.8	Total	440	100	
	Over the age of 50	36	8.2				
	Total	437	100				

* 무응답 수에 따라 변인 마다 사례 수에 차이가 있음.

2. 측정도구

1) 심리적 독립

Hoffman(1984)이 제작한 심리적 분리 척도(Psychological Separation Inventory: PSI)를 Jung(1993)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척도의 112문항 중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와 관련 있는 기능적 독립과 정서적 독립 22문항만을 사용하였다. 기능적 독립은 부모의 조언 없이도 실제적으로 개인적인 일을 처리하고 다룰 수 있는 정도를 뜻하며, 정서적 독립은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지나친 사랑, 친밀, 지지에서 자유로운 정도이다. 5점 리커트 척도로 모든 문항을 역채점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독립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기능적 독립이 .83, 정서적 독립이 .81로 나타났다.

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Betz와 Voyten(1997)이 구성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단축형 척도(CDMSES)를 Lee(2001)가 번안한 것으로, 이는 개인이 진로결정에 수반되는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다는 신념의 정도이다. 요인분석 한 결과 자기평가(7문항), 목표선택(9문항), 직업정보(5문항), 문제해결(3문항)로 구성되었다. 자기평가는 진로 결정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앞의 정도를 의미하며, 목표선택은 개인의 진로를 현실적으로 선택하거나, 잠정적으로 결정한 정도이다. 직업정보는 개인이 선택하거나 관심 있는 직업에 대한 과업, 직무 등에 대한 지식을 의미하며, 문제해결은 진로결정과정에서 직면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유연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낸다.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되며, 각 하위요인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자기평가 .84, 목표선택 .86, 직업정보 .76, 문제해결 .68로 나타났다.

3) 진로성숙도

Lee(1997)가 개인이 진로에 대해 가지는 태도와 함께 어떤 진로를 선택하는가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 개발한 진로성숙 측정척도를 사용하였다. 요인분석 한 결과 준비성(13문항), 목적성(13문항), 결정성(9문항), 확신성(9문항)의 4가지 하위요인으로 추출되었다. 준비성은 개인이 진로에 대해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준비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목적성은 진로 선택 시 현실적인 요소와 사회적인 수용가능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결정성은 진로 방향이 확고히 결정된 정도이며, 확신성은 진로에 대한 개인의 믿음의 정도를 나타낸다.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각 하위요인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준비성 .86, 목적성 .87, 결정성 .91, 확신성 .81로 나타났다.

3.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SPSS WIN 19.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첫째,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와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둘째, 심리적 독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심리적 독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진로성숙도의 차이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진로성숙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t-test와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성별에 따라 목적성($t = -.21, p <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진로의 목적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라서는 준비성($t = -3.33, p < .01$)과 결정성($t = -3.36, p < .01$)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의 준비성과 결정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발달상의 차이가 있었다.

아버지 학력에 따라서는 준비성($t = -2.24, p < .05$)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어머니 학력에 따른 진로성숙도는 결정성($t = -2.23, p < .05$)과 확신성($t = -.99, p <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전체적으로 진로성숙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버지의 경우 준비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어머니의 경우 결정성과 확신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수준은 확신성($t = -3.27, p < .01$)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이를 통해 경제수준이 중상일수록 중하의 수준보다 진로에 대한 확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이 지각한 지난 1년 동안의 평균성적에 따라 준비성($F = 4.30, p < .05$)과 확신성($F = 6.20, p < .01$)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Duncan 방법을 이용하여 사후검증을 한 결과, 준비성에 대하여 평균성적인 높은 청소년들이 평균성적이 낮은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확신성에 대하여 평균성적이 높은 청소년들이 낮은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즉, 평균성적이 높은 경우 진로성숙도가 더 높은 것을 의미한다.

Table 2. Difference in Career maturity

(N = 447)

variable	category(n)	Preparation	Object	Decisiveness	Certainty
		M(SD)	M(SD)	M(SD)	M(SD)
Gender	Male(239)	3.69(.59)	3.40(.64)	3.33(.86)	3.11(.61)
	Female(208)	3.75(.55)	3.52(.57)	3.30(.93)	3.02(.64)
	t value	-1.09	-.21*	.42	1.49
Grade	Middle school student(232)	3.63(.57)	3.41(.59)	3.17(.89)	3.03(.61)
	High school student(215)	3.80(.57)	3.51(.63)	3.45(.87)	3.10(.64)
	t value	-3.33**	-1.86	-3.36**	-.97
Father Education	Less than high school(195)	3.67(.58)	3.45(.61)	3.27(.88)	3.06(.61)
	Graduate from the university(237)	3.78(.54)	3.47(.62)	3.36(.90)	3.10(.64)
	t value	-2.24*	-.30	-1.13	-.74
Mother Education	Less than high school(226)	3.69(.56)	3.44(.60)	3.23(.88)	3.04(.57)
	Graduate from the university(204)	3.77(.56)	3.46(.62)	3.42(.90)	3.11(.68)
	t value	-1.39	-.33	-2.23*	-.99*
Income Level	Middle-high level(217)	3.74(.61)	3.43(.65)	3.35(.89)	3.16(.61)
	Middle-low level(208)	3.70(.55)	3.48(.59)	3.27(.89)	2.96(.61)
	t value	-.91	.86	-.84	-3.27**
Average Score	High-level(207)	3.79(.57) a+	3.46(.60)	3.41(.87)	3.17(.59) a+
	Mid-level(170)	3.63(.58) ab	3.43(.58)	3.26(.88)	2.99(.61) ab
	Low-level(63)	3.66(.56) b	3.53(.70)	3.14(.95)	2.91(.69) b
	F ratio	4.30*	.63	2.81	6.20**

* $p < .05$, ** $p < .01$

+ Duncun's Multiple Range Test

2. 심리적 독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의 관계

1) 중학생의 심리적 독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의 관계

중학생의 심리적 독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Table 3>의 왼쪽 아래와 같다. 심리적 독립과 진로성숙도에서는 기능적 독립이 목적성($r = .32, p < .001$)과 정적상관을, 정서적 독립이 준비성($r = -.16, p < .01$)과 목적성($r = .30, p < .001$)과 각각 부적,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심리적 독립이 높으면 목적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자기평가는 준비성($r = .59, p < .001$), 목적성($r = .14, p < .05$), 결정성($r = .60, p < .001$), 확신성($r = .50, p < .001$)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목표선택도 준비성($r = .67, p < .001$), 목적성($r = .22, p < .01$), 결정성($r = .60, p < .001$),

확신성($r = .42, p < .001$)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이 있었다. 직업정보는 준비성($r = .48, p < .001$), 결정성($r = .38, p < .001$), 확신성($r = .40, p < .001$)과 정적상관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문제해결은 준비성($r = .17, p < .05$)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고등학생의 심리적 독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의 관계

고등학생의 심리적 독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Table 3>의 오른쪽 위와 같다. 심리적 독립과 진로성숙도의 상관관계에서는 기능적 독립이 준비성($r = -.23, p < .01$)과 부적상관을, 목적성($r = .33, p < .001$)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독립은 준비성($r = -.26, p < .001$)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상관관계를, 목적성($r = .26, p < .001$)과는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심리적 독립이 높으면 목적성이 높고 준비성은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Table 3. Correlation of Variables

(Middle school student N = 232, High school student N = 215)

	High school	1	2	3	4	5	6	7	8	9	10
Middle school											
1		1.00	.74***	-.13	-.17*	-.29***	-.10	-.23**	.33***	-.01	-.01
2		.78***	1.00	-.15*	-.21**	-.27***	-.08	-.26***	.26***	-.06	-.12
3		-.22**	-.26***	1.00	.74***	.67***	.14*	.53***	.17*	.63***	.56***
4		-.12	-.18**	.74***	1.00	.62***	.12	.69***	.30***	.67***	.48***
5		-.68	-.15*	.66***	.65***	1.00	.27***	.52***	-.04	.34***	.38***
6		.05	.08	.18**	.25***	.40***	1.00	.23**	-.16*	-.12	-.08
7		-.07	-.16**	.59***	.67***	.48***	.17*	1.00	.56***	.51***	.39***
8		.32***	.30***	.14*	.22**	-.02	-.11	.20**	1.00	.47***	.40***
9		-.03	-.02	.60***	.60***	.38***	-.04	.51***	.44***	1.00	.57***
10		.09	.05	.50***	.42***	.40***	-.03	.34***	.36***	.52***	1.00

* $p < .05$, ** $p < .01$, *** $p < .001$

Note. 1. Functional-independence 2. Emotional-independence 3. Self-estimation 4. Career goal 5. Occupational-knowledge 6. Problem solving 7. Preparation 8. Objective 9. Decisiveness 10. Certainty

대각선을 중심으로 왼쪽 아래는 중학생 자료이며, 오른쪽 위는 고등학생 자료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자기평가는 준비성($r = .53, p < .001$), 목적성($r = .17, p < .05$), 결정성($r = .63, p < .001$), 확신성($r = .56, p < .001$)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었다. 목표선택은 준비성($r = .69, p < .001$), 목적성($r = .30, p < .001$), 결정성($r = .67, p < .001$), 확신성($r = .48, p < .001$)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목표선택을 구체적으로 하는 경우 진로성숙도의 준비성, 목적성, 결정성, 확신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정보는 준비성($r = .52, p < .001$), 결정성($r = .34, p < .001$), 확신성($r = .38, p < .001$)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문제해결은 준비성($r = .23, p < .01$)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목적성($r = -.16, p < .05$)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심리적 독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1) 중학생의 심리적 독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중학생이 지각한 심리적 독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다중공선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계수와 VIF값을 살펴본 결과, 모든 변수가 상관계수는 1 이하, VIF값이 3 미만으로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준비성에는 자기평가($\beta = .21, p < .01$)와 목표선택($\beta = .50, p < .001$)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자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진로에 대한 목표가 뚜렷할수록 준비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준비성에 대한 전체변수의 설명력은 47%로 나타났다.

목적성을 살펴본 결과, 기능적 독립($\beta = .23, p < .05$), 정서적 독립($\beta = .20, p < .05$), 자기평가($\beta = .19, p < .05$), 목표선택($\beta = .35, p < .001$), 직업정보($\beta = -.26, p < .01$), 문제해결($\beta = -.16, p < .05$)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목적성에 대해 전체변수는 26%의 설명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정성은 정서적 독립($\beta = .20, p < .05$), 자기평가($\beta = .40, p < .001$), 목표선택($\beta = .42, p < .001$), 문제해결($\beta = -.22, p < .001$)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냈다. 이는 결정성이 높을수록 부모와의 정서적 독립, 진로결정에 대한 자기평가와 목표선택 정도가 낮아지고 진로와 관련된 문제 해결 정도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결정성에 대한 전체변수의 설명력은 48%로 나타났다.

확신성에는 자기평가($\beta = .41, p < .001$), 직업정보($\beta = .18, p < .05$), 문제해결($\beta = -.22, p < .001$)에서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났다. 즉, 자신의 흥미와 적성 및 직업가치관에 대해 잘 알고, 관심이 있거나 이미 결정한 직업에 대한 정보가 풍부할수록 확신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확신성에 대한 전체변수의 설명력은 38%로 나타났다.

Table 4. Effect of Social Suppor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Career Maturity by Middle School Student (N = 232)

Middle school 2		Preparation		Objective		Decisiveness		Certainty	
		B	β	B	β	B	β	B	β
Psychological independence	Functional-independence	.12	.12	.23	.23*	-.05	-.04	.13	.12
	Emotional-independence	-.11	-.11	.20	.20*	.29	.20*	.12	.12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elf-estimation	.19	.21**	.17	.19*	.54	.40***	.39	.41***
	Career goal	.45	.50***	.33	.35***	.60	.42***	.09	.09
	Occupational-knowledge	.01	.01	-.24	-.26**	-.06	-.04	.17	.18*
	Problem solving	.00	.00	-.14	-.16*	-.29	-.22***	-.20	-.22***
Constant		1.40***		1.64***		-.11		.91**	
adj. (R ²)R ²		.47(.46)		.26(.24)		.48(.47)		.34(.33)	
F		33.10***		13.19***		34.65***		19.52***	

* $p < .05$, ** $p < .01$, *** $p < .001$

Table 5. Effect of Social Suppor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Career maturity by High School Student (N = 215)

High school 2		Preparation		Objective		Decisiveness		Certainty	
		B	β	B	β	B	β	B	β
Psychological independence	Functional-independence	-.05	-.05	.26	.27**	.08	.06	.19	.18*
	Emotional-independence	-.06	-.06	.09	.09	.00	.00	-.17	-.16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elf-estimation	.00	.00	.02	.02	.47	.39***	.39	.43***
	Career goal	.51	.60***	.47	.50***	.66	.52***	.14	.14
	Occupational-knowledge	.07	.08	-.20	-.23**	-.20	-.17*	.06	.06
	Problem solving	.08	.12*	-.10	-.13*	-.19	-.19***	-.13	-.17**
Constant		1.86***		1.53***		.54		1.49***	
adj. (R ²)R ²		.51(.50)		.30(.28)		.55(.54)		.36(.35)	
F		36.54***		14.58***		42.93***		19.79***	

* $p < .05$, ** $p < .01$, *** $p < .001$

2) 고등학생의 심리적 독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 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고등학생이 지각한 심리적 독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다중공선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계수와 VIF값을 살펴본 결과, 모든 변수가 상관계수는 1 이하, VIF값이 3 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준비성에는 목표선택($\beta = .60, p < .001$)과 문제해결($\beta = .12, p < .05$)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특히 목표선택이 높은 영향력을 보였는데,

진로에 대한 목표선택이 뚜렷할수록 준비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준비성에 대한 전체변수의 설명력은 51%로 나타났다.

목적성은 기능적 독립($\beta = .27, p < .01$), 목표선택($\beta = .50, p < .001$), 직업정보($\beta = -.23, p < .01$), 문제해결($\beta = -.13, p <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났다. 직업정보, 문제해결 정도가 낮을수록 목적성이 높은 반면 기능적 독립, 목표선택 정도가 높을수록 목적성도 높아짐을 살펴볼 수 있다. 목적성에 대한 전체변수의 설명력은 30%로 나타났다.

결정성을 살펴본 결과, 자기평가($\beta = .39, p < .001$), 목표선택($\beta = .52, p < .001$), 직업정보($\beta = -.17, p < .05$), 문제해결

($\beta = -.19, p < .001$)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났다. 이는 자기평가, 목표선택의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에 대한 결정 정도가 높아지고, 직업정보와 문제해결 정도가 낮을수록 진로에 대한 결정 정도가 높아짐을 나타낸다. 결정성에 대한 전체변수의 설명력은 55%로 나타났다.

확신성에는 기능적 독립($\beta = .18, p < .05$), 자기평가($\beta = .43, p < .001$), 문제해결($\beta = -.17, p < .01$)에서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났다. 즉, 부모의 도움 없이 자신의 일을 잘 해결해 나가며, 스스로에 대해 신뢰할수록 진로에 대한 확신성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확신성에 대한 전체변수의 설명력은 36%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진로성숙도의 차이점과 그들이 지각한 심리적 독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심리적 독립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를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비교하여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논의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진로성숙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 학년, 아버지 학력, 어머니 학력, 경제수준, 평균성적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 중 목적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볼 수 있었는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목적성이 높았다. 즉,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현실적인 욕구보다 사회적인 봉사나 자기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행하여, 현실과 사회적인 수용가능성을 잘 조화시킨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Lee(1997)의 연구에서 성별에 따른 발달정도가 다르며 여학생들이 남학생보다 비교적 정보적 측면이나 사회적인 측면이 발달한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Lee(2006)의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직업을 얻는 목적을 자아실현이나 사회적 봉사 등에 두는 목적성이 높다는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이는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진로교육과 상담의 접근 방식을 적절히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시사한다.

학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준비성과 결정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진로에 대한 탐색 및 적극적인 참여와 자신의 진로에 대한 확신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서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는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구체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는데 적극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는 Song(2011)의 연구에서 중·고등학교 시기에 진로성숙도가 성장하며, 연령과 성장 정도가 정적 관계가 있음을 나타낸 결과와 일치하

는 결과이다. 더불어 오스트레일리아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Peter and Patton(2003)의 연구에서도 진로성숙도를 예견하는 변인 중 연령이 정적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결과와 일치한다.

부모와 관련된 변인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 연령, 아버지 학력, 어머니 학력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자녀양육에 관련하여 부모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며, 특히 청소년 중,후기에 부모의 영향이 자아 발달 및 진로결정에 대해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을 나타낸다(Blos, 1979). 이는 Kim and Rhyu(1993)의 중학생의 진로성숙도에 관한 연구에서 부모의 학력에 따라 진로성숙도에 차이를 보이는 것과 일치한다. 구체적으로, 아버지의 학력이 대졸인 학생과 어머니의 학력이 고졸인 학생의 진로성숙도가 가장 높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다른 여러 연구들에서도 부모의 교육수준이 자녀의 진로성숙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음을 나타내는 연구와도 같은 맥락이다(Kim, 1989; Kwon, 1996; Lee, 2001).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청소년은 진로를 선택하는 전반적인 부분에서 부모의 영향력이 높음을 시사한다. 학부모의 진로 관련 네트워크 활동 등의 활발한 참여가 청소년들이 개인의 진로과업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임을 알 수 있으며,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2013)의 진로교육활성화 방안에서 추진하는 ‘학부모진로코치단’이 내실 있게 추진된다면 학교에서의 진로교육이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수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확신성에 대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경제수준이 높다고 지각하는 학생일수록 자신이 선택하고 나아가고 싶은 진로에 대해 잘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는 정도가 높음을 나타낸다. 선행연구(Super, 1957; Metheny & McWhirter, 2013)에서 사회·경제적 지위 등의 문화적 요인도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라고 한 주장과도 일치한다. 현대사회는 진로와 전공 결정, 취업을 위해서 경험해야 하는 것과 정보들이 많으며, 이에 대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적을수록 사회적 지원을 많이 받고 있다고 느끼고 그로 인해 본인의 진로행동에 대한 확신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추측된다. 반면 Choi(2001)의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는 진로성숙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들이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자신의 가정환경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다는 연구자의 추측과 함께 앞으로 정확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평균성적(청소년이 지각한 지난 1년 동안의 평균성적)은 준비성과 확신성에 대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학업성취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원도 많이 받고 있다는 연구결

과를 바탕으로 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Hwang, 2006). 학업 성적이 높을수록 또래와 교사, 부모로부터의 지지가 높아지고 이들이 개인의 자아를 형성하는 자본으로서 자신을 이해하게 된다. 즉, 학업성적이 높은 학생일수록 자신의 진로에 대해 확실한 결정과 적극적인 탐색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짐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둘째, 심리적 독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중간 정도의 상관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심리적 독립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에 부적상관이 나타났는데, 이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심리적 독립과 진로결정 수준 및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를 살펴본 Park and Kim(2006)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심리적 독립과 진로성숙의 준비성이 부적상관이라고 보고한 Lee(1999)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즉, 우리나라 청소년은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하기보다는 지지, 인정을 받고 관심과 같은 외부 요인에 의해 진로를 결정하고 수행하려는 것으로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Kang(2008)의 연구와 Scott and Church(2001)의 부모로부터의 갈등적 독립과 애착이 진로 준비와 행동에 대해 정적상관을 보였다는 연구결과와 상반된다. 이러한 결과는 심리적 독립에 대한 인식이 외국과 우리나라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우리나라 교육환경에서의 심리적 독립이 가지는 의미와 진로관련 변인들의 관계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성숙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는 Kim(2010)의 연구와 일치한다. 즉, 자신의 진로결정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높을 경우 직업선택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준비해 나가는 요소인 진로성숙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청소년의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는 정적상관이 높고,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들이 낮은 학생에 비하여 진로선택에 대한 수행성, 지향성, 결정 정도, 타협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와 일치한다(Kim, 2001; Yang, 2004). 이를 통해, 진로에 대한 전반적인 수행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신의 진로·직업에 대한 선택과 준비 등이 선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즉, 올바른 진로선택을 위해 직업세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더불어 개인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진로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셋째,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지각한 심리적 독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심리적 독립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대한 높은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이 지각한 심리적 독립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전반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진로성숙도의 모든 하위요인들에서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통해 직업행동이 연령에 증가함에 따라 점점 더 목표 지향적이고, 현실적이며, 독립적으로 발달한다는 Lee(2003)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살펴볼 수 있다. 이는 Lim(2004)의 청소년의 진로성숙도 발달에 관한 단기종단연구를 실시한 결과, 연구대상 학생들이 약 8개월 만에 대부분 하위영역에서 증진되는 경향을 보인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Choi(2009)가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시기의 4년 동안의 진로성숙 발달에 관해 연구한 결과, 진로성숙도는 시간이 흐를수록 높아지는 결과와도 일치한다. 선행연구들과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종단적 개념을 포함한 진로성숙도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와 행동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청소년의 발달 수준을 고려한 상담 개입과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한편, 심리적 독립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비교적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는 부모와의 유대적이고 지지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독립이 되었을 때 진로 결정에 대한 수준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Lee, 1999)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성숙도에 대한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부모의 영향력이 비교적 비슷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또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연령에 따른 발달적 개념을 가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진로성숙도에 대한 영향력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발달적 측면을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진로상담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연령별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임을 알 수 있다.

청소년의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 중에서 기능적 독립이 정서적 독립보다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정적영향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진로성숙도에 가장 영향력 있는 심리적 독립의 하위요인은 기능적 독립과 정서적 독립이라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Lee, 1999). 또한 정서적 독립이 진로성숙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Lee(2007)와 Park(2009)의 연구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이를 통해 부모와의 적절한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그들의 도움이나 조언 없이도 실제적으로 진로에 대한 정보탐색, 모델링 형성, 진로탐색 기회에 대한 적극적 참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높았는데, 이는 진로성숙태도에 대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오스트레일리아의 중·고등학생에게 높은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밝힌 Peter and Petton(2003)의 연구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모두에게 진로발달을 예언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는 결과를 나타낸 Lea(2000)의 연구와 일치한다. 또한 Park(2007)의 종단연

구에서 해당시기의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진로성숙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목표선택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진로성숙도의 모든 하위요인들에 대해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는 Cho(2011)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 중 목표선택이 청소년 인턴십 프로그램에 의해 가장 많이 설명되었다는 선행연구와도 일치한다. 즉, 청소년이 자신의 진로에 대한 목표가 높을수록 진로에 대한 준비태도 및 적극성이 높아짐을 의미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확일적이고 단편적인 진로설정이 아닌 개인에게 적합한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진로지도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Kim and Yun(2013)의 연구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을 실시한 결과,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의 학교만족도를 높이는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프로그램을 지역사회의 연계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진행한다면 학생들의 진로를 위한 실질적인 매개체로 자리매김할 것임을 살펴 볼 수 있었다. 이처럼 직·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자신에 대한 이해도와 믿음을 높인다면, 진로와 관련된 전반적인 과정을 성숙하게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직업정보와 문제해결에서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인 목적성과 결정성에 대해 유의미한 부적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진로를 선택할 때, 직업 및 진로에 대한 정보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수용가능성과 개인의 자아실현에 대한 조화로운 진로결정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이 발달적인 측면에서 진로를 큰 과업으로 여기고 주변의 의미있는 타인들의 지지를 필요로 한다는 선행연구(Lee & Yoon, 2011; Lee & Lee, 2012)와 같은 맥락이다. 즉, 현재 청소년들이 진로에 관한 정보를 얻고 장기적인 진로 계획을 세우는 데에 있어서 실질적인 정보가 부족하며, 경험의 부족으로 실제 진로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음을 의미한다. 즉, 그들이 개인의 적성과 인성을 바탕으로 한 자기실현적인 진로선택과 유망학과, 성적에 맞춘 진로선택, 부모의 권유 등의 현실타협적인 진로선택의 적절한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앞으로 직업 세계에 대한 지식, 직업의 중요성 등을 포함한 진로 연구로 심도 깊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진로상담 현장과 진로 관련 프로그램 과정에서 개인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즉, 상담 현장에서의 지속적인 지지와 격려를 통해 개인의 자기효능감 수준을 높이는 것과 함께 프로그램을 더욱 체계적이며 경험중심적으로 구성하여 성공경험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외적 인정과 함께 청소년이 스스로 자신의 진로 결정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상담과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되며, 더불어 학교 현장에서

의 진로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들이 현장중심적인 직업체험을 통해 다양한 직업 세계를 경험 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진로·직업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현재 국가에서 진행하는 진로정책을 가정, 학교, 지역사회와 연계망을 구축하여 꾸준히 시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진로에 관한 계속적인 연구, 체계적인 진로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전문성 있는 진로상담자 발굴, 지역 네트워크 구축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상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청소년의 진로 발달은 부모와의 심리적인 유대관계와 개인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주변의 영향력 있는 타인인 교사, 부모의 관심과 지원을 바탕으로 개인의 진로탐색을 위한 적극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이 D 지역의 일부 중학교와 고등학교 재학생에 한정되어 있어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대표성이 있는 연구대상을 선정하여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진로성숙도의 발달상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대상을 중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으로 선정하였지만, 대학생도 비교하여 살펴본다면 각 시기의 진로성숙의 수준과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같은 시기의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선택하여 연구하였지만, 한 대상을 정하여 진로성숙의 발달에 관한 중단연구를 진행한다면 더욱 명확한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사료된다.

REFERENCES

Ahn, S., Kim, H., Kang, Y., & Song, M.(2012). Life styles and living conditions of youth: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Research Report.

Au, Y.(2008). Factors to deci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trinsic or extrinsic work values : Sex, career maturity, achievement motivation. *The Journal of Research in Education*, 32, 119-141.

Betz, N. & Voyten, K.(1997). Efficacy and outcome expectation influence career exploration and decidedness.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6, 179-189.

Blos, P.(1979). *The adolescent passage*. New York: Inter-

- national University press.
- Cha, J., Kim, A., Lea, E., & Kim, B.(2007). Gender difference and developmental trend in career maturity and career indecision among adolescents. *Korean Educational Psychology Association, 21(4)*, 923-944.
- Cho, E.(2011). The effects of the youth internship program for high school student's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CDMSE)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4(4)*, 191-208.
- Choi, H.(2001). *A study on relationships among social environment variables, personal variables and career maturity attitude of early adolescents*. Unpublished Doctor dissertation. Konkuk University, Seoul.
- Choi, S.(2006). *The effects of psychological independence from parents, attachment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the college students' career attitude maturity*. Unpublished Master Thesis. Kyungpook University, Daegu.
- Choi, S.(2009). The development and relationship of self-esteem and career attitudes maturity among adolescents: 4 years longitudinal study.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0(4)*, 2257-2271.
- Crites, J.(1961). A model for the measurement of vocational maturit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8(3)*, 255-259.
- Erikson, E.(1969).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Inc.
- Fouad, N. A.(1988). The construct of career maturity in the United States and Israel.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3*, 510-526.
- Ginzberg, E., Ginsburg, S. W., Azelrad, S., & Herma, J. L.(1951). *Occupational choice: An approach to a general theor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Hackett, C. & Bets, N. E.(1981). A self-efficacy approach to the career development of woma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8*, 326-339.
- Havinghurst, R. J.(1952). *Development tasks and education*. N.Y.: Longmans, Green.
- Hoffman, J. A.(1984). Psychological separation of late adolescent from their par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 170-178.
- Hoyt, K. B.(1977). *Career education in the high school*. Salt Lake City, UT: Olympus.
- Hwang, M.(2006). The effects of the social relationships on the academic achievement of Korean students. *Asian journal of education, 7(3)*, 187-203.
- Jesselson, R.(1988). The embedded self: I am thou Revisited. In D. K. Lapsley., & F. C. Power. (Rds.), *Self, ego, and identity: Intergrative approaches* 91-108. N.Y.: Spring- Verlag.
- Jung, E.(1993). *A analysis of correlation between psychological independency from parents and adaptation of university*. Unpublished Master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Kang, J.(2008). *The effect of parental rearing attitudes perceived by teenagers and their psychological separation on career decision-making*. Unpublished Master Thesis. Dong-A University, Busan.
- Kim, A., Lee, J., & Choi, B.(2010). A five-year longitudinal study on development of career maturity in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Focused on gender, parental attachment, and peer attachment.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2(3)*, 843-862.
- Kim, B., Kim, B., & Jyung, C.(2006). *Career counseling*. Seoul.: Hakjisa.
- Kim, H.(1989).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areer maturity levels of Korean adolescents and the related variables*. Unpublished Doctor dissertation. Konkuk University, Seoul.
- Kim, H.(2001).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fficacy and career maturity of middle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Chungnam.
- Kim, H. & Yun, H.(2013). A case study on conditions for the facilitation of creative hands-on activities in schools. *Studies on Korean Youth, 24(1)*, 5-33.
- Kim, H. & Ryu, C.(1993). Career maturity of the middle School Students and Its Related Factors. *The Journal of Korean industrial education association, 18(2)*, 102-105.
- Kim, K. & Rhyu, J.(2009). The effect of career decision level, career identity and psychological independence on affect of career decision statu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6(1)*, 73-92.
- Kim, S.(2005). *The influence of parent suppor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dysfunctional career thoughts on adolescents' career development*. Unpublished Master Thesis. Hong-ik University, Seoul.
- Kim, Y.(2010). *The influence of parent's academic achieve-*

- ment pressure and teenager's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on career maturity. Unpublished Master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Baekseok University, Chungnam.
- Kwon, S.(1996). *A Study on some variables affecting the career maturity of Korean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 Thesis. Yeungnam University, Kyungpook.
- Lea, E.(2000). *A study on the effect of self-efficacy upon the career development*. Unpublished Doctor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Lee, E.(2006).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maturity and career aspiration of female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Master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Lee, E.(2001). *Effects of career-planning group counseling for multipotential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Doctor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 Lee, H.(1999). Role of Parent - Adolescent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Attachment Relationship in Career Maturity of Korean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1(2), 239-250.
- Lee, H.(2001). *A study on a coeducation technical high school girl's career maturity and its related environment variables*. Unpublished Master Thesis. Seoul Women's University, Seoul.
- Lee, H.(2003). *Counseling for career maturity*. Seoul.: Hakjisa.
- Lee, H. & Cheon, M.(2004). The effects of career maturity levels on decision-making ability and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of high school student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al Research*, 17(2), 106-128.
- Lee, H.(2007). *The effect of dysfunctional family structure and psychological separation on career attitude maturity of adolescent*. Unpublished Master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Lee, J. & Lee, J.(2012).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career maturity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30(4), 77-87.
- Lee, K.(1997).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maturity and psychological facto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 Lee, K. & Han, J.(1997). The study of career attitude maturity scale.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8, 219-255.
- Lee, K. & Yoon, M.(2011). The Effect of Parent Factor, Peer Attachment and Self-Esteem on Mature Career Choice in Adolescents. *The Korean Association of Family Welfare*, 16(1), 175-199.
- Lee, N.(2003). *The effect of psychological independence from parents and attachment to parents on career attitude maturity of adolescents*. Unpublished Master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Lim, E.(2004). The short-term longitudinal study on the development of youth's career maturation. *The Korea Educational Review*, 42(3), 325-348.
-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2013). *Invigoration plan of Career education*. Press report.
- Metheny, J. & McWhirter, E. H.(2013). Contributions of social status and family support to college students'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nd outcome expectation.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24, 1-17.
- Park, H. & Kim, B.(2006). The relationships among psychological independence,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8(2), 419-439.
- Park, W.(2007). The longitudinal study of factors effect on career maturity for secondary students. *The Korea Society for the Study of Career Education*, 20(4), 87-101.
- Park, Y.(2009). *The relationships among parental support,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of meddle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 Peter, A. C. & Patton, W.(2003). Predicting Two Components of Career Maturity in School Based Adolescents.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29(4), 277-290.
- Rhee, J.(2003).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self- a wareness of teenagers and decision making styles*. Unpublished Master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 Rice, K. G.(1992). Separation-individuation and adjustment to college: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9, 298-307.
- Scotte, D. J. & Church, A. T.(2001). Separation/Attachment theory and career decidedness and commit-

- ment: Effects of parental divor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8, 328-347.
- Seo, W.(1994). *Career decision-making of high school student and its related variables*. Unpublished Doctor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Shin, H. & Lee, M.(2011). A four-year longitudinal study on development of career maturity in adolescents: effect on stress, aggression, depression.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8(7), 139-161.
- Song, M.(2011). A study on career maturity and decision-making transitions of youth.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8(4), 329-347.
- Super, D. E., Crites, J. O., Hummel, R. C., Moser, H. P., Overstreet, P. L., & Warnath, C. F.(1957). *Vocational development: A framework for research*. NY: Bureau of Publications,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 Press.
- Tang, M., Fouad, N., & Smith, O. L.(1999). Asian Americans' career choices : A path model to examine factors influencing their career choic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4, 142-157.
- Yang, K.(2004).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fficacy and career maturity of adolesc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nbuk National University, Chungbuk.
- Yoo, N. & Lee, K.(2005). The effects of attachment, psychological independence and emotional intelligence 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7(2), 451-466.
- Yoo, S., Yun, K., & Kang, S.(2006). Differences in career maturity between the gifted in science and the average middle school students by gender and grade.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7(2), 399-415.

접수일 : 2013년 03월 15일

심사일 : 2013년 03월 28일

게재확정일 : 2013년 05월 03일